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

김 동 건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자면 당과 혁명대오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입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이라는것은 그것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며 그의 전과정에 관통되어있는 근본문제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이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그에 철저히 지향되고 복종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과 건설의 승패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며 당건설에서 기본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과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는 곧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령도자의 사상체계, 령도체계이며 그것은 전당, 전군, 전민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성과적으로 확립될수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당을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결합체로 만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이런 의미에서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로, 핵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추켜들고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당의 최고강령이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총적목표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으며 당대렬과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고 옳바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어나갈수 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거부하는 반혁명적행위는 당과 혁명위업을 말아먹게 된다. 당안에 분파가 조성되고 당이 사분오열되는것도, 민심이 변하는것도 결국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대한 배신행위와 관련되어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혁명에서만 높이 추켜들수 있는 성스러운 기치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추켜들고나가자면 당과 혁명대오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대로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키고 완성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가장 숭고한 혁명적세계관이며 사람들을 혁명위업수행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고귀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누구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하면 자기 수령만을 알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자라나게 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고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오직 승리와 영광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당의 필승불패의 위력이 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로, 핵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자면 령도자의 두리에 전당, 전군, 전민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중심과업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의 공고성과 생명력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에 의하여 담보된다. 천만군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칠 때 전당과 온 사회에 하나의 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할수 있으며 전당, 전군, 전민이 령도자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수 있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및 도덕의리적단결이다. 의무감에 의한 결합이나 실무적단합은 오래갈수 없으며 혁명의 엄혹한 시련을 이겨낼수 없다. 오직 하나의 사상의지와 혁명적의리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결속된 일심단결만이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불패의 통일단결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다져나가자면 당과 혁명대오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한다.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일심단결이 이룩되었다고 하여 자만하면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리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통일단결이 점차 약화되고 파괴될수 있다.

특히 혁명의 대가 바뀌고 내외정세가 복잡할 때 일심단결을 고수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의 대가 바뀌고 내외정세가 복잡할 때 음모가, 야심가들이 나타나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책동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투쟁은 일심단결을 쪼먹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와의 투쟁을 동반한다.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가장 위험한 사상조류는 종파주의를 비롯한 반혁명적사상조류이다. 당안에 반혁명

적사상조류가 허용되면 반당집단이 형성되고 혁명위업이 말살되게 된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을 단호히 짓부셔나가는데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수 있는 비결이 있다.

오늘 우리의 일심단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혈연적으로 굳게 결속된 일심단결이다.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사상과 뜻,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함께 해나가는 우리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통일단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대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억척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로, 핵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위대한 령도자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기 위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확립하는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령도자에게 집중시키고 령도자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안에 제정된 규률과 질서대로 생활하는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울 때 령도자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령도자의 유일적령도에 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은 당의 생명이며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당안에 혁명적인 규률을 철저히 세워나가는 데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나갈수 있는 담보가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령도자의 명령지시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확립하자면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령도자를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받들어나가며 당안에 제정된 규률과 질서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것이 좌우된다.

물론 당안에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우는데서 조직적인 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직적인 통제만으로는 당내에서의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 문제를 옹바로 해결할수 없다.

전당, 전군, 전민이 령도자의 명령지시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은 그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령도자에 대한 고결한 충정심, 확고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있다.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오직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령도자와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철석의 신념으로부터 령도자의 명령지시에 절대복종하고 그것을 결사관철해나가며 당안에 제정된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게 된다. 이것은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가 전당, 전군, 전민이 령도자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이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

여서는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사상전의 포성이 높이 울리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특히 5대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여 모든 사람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싸우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전위투사가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온 사회에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사회주의도덕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철저히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여기에 총화력을 집중하여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야 할것이다.